

표지 탐색하기

<내 용돈 돌려줘!>를 읽기 전에 책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앞표지의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2) 앞표지에 그려져 있는 아이의 표정은 어떤가요?

⇒

3) 책 뒤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은빈이 생일 파티에서 사랑이는 엄마 몰래 용돈을 받았어요.
 용돈이 생기면 신나는 일이 많을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갚아야 할 돈이 자꾸자꾸 늘어납니다.
 용돈을 지키기 위한 사랑이의 조마조마한 하루를 만나 보세요!

① 여러분도 '사랑이'처럼 용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

② 밑줄 친 내용으로 보아, '사랑이'가 용돈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의 내용을 예상해 보세요.

⇒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내 용돈 돌려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아무튼 ㉠외상이라는 말은 합리적이라는 말처럼 좋은 말인 건 확실하다.
 · 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거 같았다.
 · "우리 엄마는 ㉢합리적이거든." / 은빈이가 어려운 말을 했다.
 · 엄마는 세련되고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허점을 보이지 않는다.
- (나) 드디어 엄마 목소리가 뽀족해졌다. 기분이 살살 상하고 있다는 증거다.

1) (가)의 밑줄 친 낱말 ㉠~㉣과 그 뜻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 외상	·	·	① 고마움을 깊이 느낌.
㉡ 감격	·	·	② 이론이나 도리에 맞는 취지에 합당한. 또는 그런 것.
㉢ 합리적	·	·	③ 불충분하거나 허술한 점. 또는 주의가 미치지 못하거나 틈이 생긴 구석.
㉣ 허점	·	·	④ 물건의 값은 나중에 치르기로 하고 물건을 사거나 파는 일.


2) (나)의 밑줄 친 부분에서 '상하다'는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근심, 슬픔, 노여움 따위로 마음이 언짢아지다.

이러한 뜻이 드러나도록 '상하다'라는 낱말을 사용하여 문장을 지어 보세요.

⇒





내 용돈 돌려줘! (초등 3단계)

킨더랜드 | 박현숙 글 / 오은옥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내 용돈 돌려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가) 나는 터미널로 가는 차 안에서 내내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도 ()도 모르게 용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나) ·나는 속이 바짝바짝 탔다. ㉠'가는 날이 ()'이라는 속담을 국어 시간에 배웠다. 그런 속담을 어디에 써먹나 생각했었는데 딱 오늘 같은 날에 맞는 속담이었다. 하필이면 지금 가방 지퍼가 고장이라니.

· "㉡세 살 ()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사랑을 올바른 경제 관념을 가진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어머니, 도와주실 거죠?"


· 은빈이가 흥정에 나섰다. ㉢병 주고 () 주고, 그 속담은 지금 은빈이가 하는 짓에 딱 맞다.

1) 다음은 (가)의 밑줄 친 표현이 지닌 뜻입니다. 이 뜻을 참고하여 (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순서대로 쓰세요.

감쪽같이 행동하거나 처리하여 아무도 그 경위나 행방을 모르게.

2) 다음은 (나)의 ㉠~㉢에 쓰인 속담의 뜻입니다. 각 빈칸을 채워 속담을 완성하세요.

- ㉠'가는 날이 ()'
⇒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세 살 () 여든까지 간다
⇒ 어릴 때부터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병 주고 () 주고
⇒ 교활하고 음흉한 자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내 용돈 돌려줘! (초등 3단계)

킨더랜드 | 박현숙 글 / 오은옥 그림

용돈을 얻자! ①

다음 <내 용돈 돌려줘!>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말을 하다 보니 엄마에게도 참 좋은 일이었다. 나는 엄마 눈치를 보며 두 손을 얹전히 모아 내밀었다.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용돈을 타 내야 꼬치 할아버지한테 천 원도 갚을 수 있고 은빈이 보란 듯이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다.

"용돈을 달라고?" / "응." / "그건 안 돼."

엄마는 아주 큰일이라도 난 놀란 토끼 눈이 되어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왜 안 돼?"

"너는 아직 돈 쓸 줄 몰라. 경제 관념이 없다는 말이야. 네가 돈 쓰는 방법을 알 때까지 엄마가 다 알아서 해 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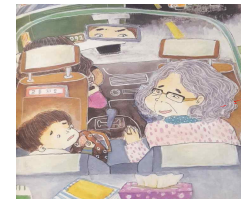
(나) "에이." / 나는 가방을 두들겨 팼다.


"사랑아, 가방 안에 귀한 홍삼병이 들었는데 그렇게 패면 어째. 그러다 깨지면 큰 일이다. 할머니가 나중에 지퍼 고치면 알아서 줄 테니 그만해라."


1) (가)에서 '엄마'는 '나'(사랑)에게 왜 용돈을 줄 수 없다고 했는지 쓰세요.

⇒ '나'(사랑)가 아직 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나)에서 '나'(사랑)가 '할머니'의 가방에 집착하고 있는데, '할머니'의 가방을 열게 되면 '나'(사랑)는 '할머니'로부터 무엇을 받게 되기 때문인지 쓰세요.





 **내 용돈 돌려줘!** (초등 3단계)
 킨더랜드 | 박현숙 글 / 오은옥 그림

 **용돈을 얻자! ②**

다음 <내 용돈 돌려줘!>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내 생일에 오면 돈을 받게 될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한 사람에 오천 원이나 만 원씩. 그 돈으로 우리가 먹고 싶은 걸 사 먹으면 되는 거지. 햄버거를 사 먹어도 되고 돈을 모아 피자를 사 먹어도 돼. 먹는 게 싫으면 게임을 하거나 실내놀이터에 가도 상관없어. 어때, 근사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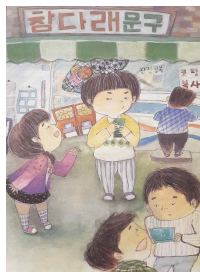
나는 돈을 준다는 은빈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당장 다음 주 수요일에 꼬치값을 갚아야 하는데.

(나) “만 원을 벌써 다 썼다고?”

“나는 돈을 받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 놓거든. 그래서 돈을 받자마자 금방 다 써.”
 은빈이는 말을 하며 내 주머니를 झा아보았다. 눈빛으로 주머니를 훑을 거 같았다.
 은빈이는 분명 돈 냄새를 맡고 따라온 도둑이다.


1) 윗글에서 ‘나’(사랑)가 ‘은빈이’의 생일 파티에 가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쓰세요.
 ⇨

2) (나)에서 ‘나’(사랑)는 ‘은빈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쓰세요.



‘나’(사랑)가 생각하는 은빈이

□	□ □ □	□ □	□ □ □ □	□ □
---	-------	-----	---------	-----

 **내 용돈 돌려줘!** (초등 3단계)
 킨더랜드 | 박현숙 글 / 오은옥 그림

 **용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어!**

다음 <내 용돈 돌려줘!>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는 ‘강력 슈퍼 천사’ 카드를 다시 제자리에 매달았다. 한 가지 사는데 이천 원이나 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나) “아저씨, 면 뽑기 얼마예요?” / 나는 보란 듯 면 뽑기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천오백 원이다.” / 하지만 문방구 아저씨가 대답하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다. 비싸도 너무 비싸다. 나는 만지작거리던 면 뽑기를 열린 제자리에 놓았다.

(다) “돈을 넣은 순간 두더지들이 머리를 막 내밀거든. 아주 쪼삐개 머리를 쳐야 해. 누가 많이 때리나 내기하자. 지는 사람이 수요일에 꼬치 사 주기.” / 은빈이는 소매까지 걷었다. 꼬치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값을 돈이 있다는 걸 깜빡했다. 꼬치 할아버지한테 천 원, 지하도 거지 할아버지한테 천 원. 만약 내기에서 은빈이에게 진다면 써야 할 돈이 늘어난다. 내가 쓰고 싶은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라) 열 살이나 먹은 남자아이가, 3학년씩이나 되어서 인형이라니……. 게다가 뽑으면 저 인형을 어떻게 안고 다니라고? 만 원짜리가 아니라 삼만 원짜리라도 싫다.
 “정말 싫어?” / 은빈이가 다짐을 주듯 힘주어 물었다. 입에도 힘이 들어갔다.
 “창피해서 싫어.” /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다. 나는 뒤돌아섰다.

윗글에서 ‘나’(사랑)는 ‘문구점’과 ‘오락실’에서 왜 돈을 쓰지 못했나요?

문구점	슈퍼 천사 카드	
	면 뽑기	
오락실	두더지 게임	
	인형 뽑기 게임	



내 용돈 돌려줘! (초등 3단계)

킨더랜드 | 박현숙 글 / 오은옥 그림

용돈 돌려줘!

다음 <내 용돈 돌려줘!>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물었다. 안전하게 접힌 만 원짜리 지폐가 만져졌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칠천 원이다.” / 칠천 원이라는 말에 내 가슴은 토끼 가슴처럼 팔딱거렸다. 흥시 몇 개가 칠천 원이라니. 할머니의 억지가 분명했다.

(나) 나는 꼬깃꼬깃한 삼천 원을 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소시지 하나에 오백 원이거든. 고양이가 일곱 개를 먹었으니 오백 곱하기 칠을 해 보렴. 그럼 삼천오백 원, 맞지?”
 일곱 개나 먹다니. 조그만 고양이가 많이도 먹었다. 나는 소시지 껍질을 세어 보았다. 틀림없이 일곱 개였다.

1) (가)에서 ‘나’(사랑)는 실수로 과일 가게 좌판을 덮치는 바람에 흥시 값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나’(사랑)의 마음은 어땠을지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떠올려 써 보세요.

2) (나)에서 ‘나’(사랑)는 슈퍼에서 오백 원을 외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으로 외상을 하게 되었는지 쓰세요.

↳



내 용돈 돌려줘! (초등 3단계)

킨더랜드 | 박현숙 글 / 오은옥 그림

용돈으로 생긴 빚을 갚자!

다음 <내 용돈 돌려줘!>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냥 갚아 주는 것이 아니고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은빈이 돈을 빌려 고치 값 천 원, 지하도 할아버지 줄 돈 천 원, 소시지 외상값 오백 원을 갚으라는 말이다.

(나) 이제 내일부터 내년 은빈이 생일까지 은빈이의 하인이다. 연기처럼 사라진 내 돈과 앞으로 은빈이를 줄줄 따라다니며 하인 노릇을 할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다.


(다) “너, 은빈이한테 빌린 이천오백 원 이자로 은빈이 하인할 거니?”
 엄마 표정이 진지했다. / “차라리 당당하게 돈을 벌어서 빌린 돈을 갚는 건 어떠니?” 돈을 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제 고작 초등학교 3학년이 어디 가서 뭘 해서 돈을 번담. / ㉠“집에서 엄마 심부름하고 청소 도와주면 엄마가 이천오백 원 줄게. 할 수 있겠어?”
 “진짜?” / 세상에 이런 일이! 심부름이고 청소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1) 윗글에서 빚을 진 ‘나’(사랑)의 상황에 대해 ‘은빈이’가 생각해 낸 해결책을 정리해 쓰세요.

‘나’(사랑이)가 빚을 갚기 위한 방법	
‘나’(사랑이)가 빚을 갚고 ‘은빈이’에게 이자를 내는 방법	


2) ㉠의 말을 들었을 때 ‘나’(사랑)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는지 써 보세요.

↳



내 용돈 돌려줘! (초등 3단계)

킨더랜드 | 박현숙 글 / 오은옥 그림



내 용돈 돌려줘! (초등 3단계)

킨더랜드 | 박현숙 글 / 오은옥 그림

용돈을 지키기 위해 용돈 기입장을 쓰자!

1) 그동안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받은 용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떠올려 보고, 이 책에서 돈을 다 쓰고 빚까지 진 '나'(사랑)의 상황과 비교하여 써 보세요.
⇨

2) 이 책의 '나'(사랑)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쓰시오.
⇨

3) 2)의 질문에 대한 답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용돈 기입장을 써 보세요.

날짜	받은 돈	쓴 돈	남은 돈
9월 10일	1,000원 (방 청소 후 엄마께 받음.)		1,000원
예) 9월 23일		500원 (문구점에서 지우개 삼.)	500원

()의 용돈 기입장

날짜	받은 돈	쓴 돈	남은 돈

정답과 해설

예시답안은 모범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

1쪽	(예시답안) 1) 남자 아이 손에 돈이 들려 있고 그 모습을 멀리서 여자 아이가 바라보고 있다. 2) 남자 아이는 누군가 돈을 가져갈 것 같다는 불안감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다. 3) ① 나는 할머니께 용돈을 받은 다음날 학교 후 문구점과 분식점을 지날 때 용돈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눈을 질끈 감고 곧장 집으로 온 적이 있다. ② 갇아야 할 돈이 자꾸자꾸 늘어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사랑이가 용돈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
2쪽	1) ㉠ : ㉣, ㉡ : ㉠, ㉢ : ㉡, ㉤ : ㉢ 2) (예시답안) 나는 영철이의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다.
3쪽	1) 쥐, 새 2) ㉠ : 장날, ㉡ : 버릇, ㉢ : 약
4쪽	1) 경제 관념 2) 용돈
5쪽	1) '은빈이'의 생일 파티에 가면 '은빈이' 엄마가 돈을 주기 때문이다. 2) 돈 냄새를 맡고 따라온 도둑
6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 슈퍼 천사' 카드 : 한 가지 사는데 이천 원이나 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이다. • 면 뽑기 :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 두더지 게임 : 내기에서 지면 써야 할 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인형 뽑기 게임 : 인형이 창피하고 싫기 때문이다.
7쪽	<p>1) (예시답안) '나'(사랑)는 만 원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순간간에 생각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칠천 원을 쓰게 되어서 많이 속상하고 억울했을 것 같다.</p> <p>2) 배고픈 고양이에게 소시지를 사주었는데 소시지 값이 모자라 외상을 하게 되었다.</p>
8쪽	<p>1) • '나'(사랑)가 빚을 갚기 위한 방법 : 자신이 돈을 빌려 주어서 '나'(사랑)가 빚을 갚는다. • '나'(사랑)가 빚을 갚고 '은빈이'에게 이자를 내는 방법 : 내년 '은빈이' 생일까지 '은빈이'의 하인 노릇을 해야 한다.</p> <p>2) (예시답안) '나'(사랑)는 이자 때문에 '은빈이' 하인 노릇을 할 생각에 걱정이 되고 눈물이 쏟아졌는데 엄마의 말을 듣고 걱정했던 일이 사라져 기쁘고 안도했을 것 같다.</p>
9쪽	<p>1) (예시답안) 나도 '나'(사랑)처럼 용돈이 생기면 어디다 쓸지 결정하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쓴다고 막연히 생각만 하다가 어디다 썼는지 모르게 돈을 모두 쓰고는 한다.</p> <p>2) (예시답안) 돈이 생기면 무턱대고 쓰기보다는 일단 어디다 얼마 정도를 쓸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용돈 기입장을 쓰면서 계획대로 돈을 쓴다. 3) 생략.</p>